

# ESCO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투자를 기대한다



유제인 회장

**최** 근 확정돼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2007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3개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총 3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해 투자된 257억 원 대비 17% 증가된 것으로 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에너지분야는 그동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음에도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분야에서는 산업인력양성(15억 원), 기초인력양성(40억 원), 고급인력양성(109억 원) 등에 모두 164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 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핵심기술연구센터(59억 원), 특성화대학원(20억 원), 최우수실험실(6억 원)에 8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분야는 학술진흥사업(15억 원), 인력양성센터(24억 원), 장학연수(2억 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5억 원), 자원개발아카데미(5억 원)에 51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들의 목적은 에너지분야의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교육하여 에너지 관련산업을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달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외형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대국

으로 성장했을 만큼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발전의 기본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의 수급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 정책, 제도, 기술, 자금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투입되는 투자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한시바빠 친환경에너지기술들이 도입돼 저비용 고효율 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왜 ESCO와 관련된 인력의 양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협회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교육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희망해 에너지절약기술과 보급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또한 2000년 이후 ESCO사업이 점차 활성화될 무렵 일부 대학에서는 ESCO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ESCO사업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수요가 있으므로 공급이 있다는 경제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일 것이다. ESCO사업은 에너지진단에서부터 기술의 도입과 적용, 자금,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매단계 별로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숙달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절감과 절약에 있어 크게 기여하고 있는 ESCO사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ESCO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본다.